

혼인 형태와 행복의 관계: 결혼과 시민결합의 매개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전승민*

구교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세대가 장차 중·노년에 접어들면 국가 전반의 행복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출산이 결혼과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이로 인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시민결합을 도입하여 정책 수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 본고는 전통적인 결혼과 대안적 제도인 시민결합이 개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함의를 논한다. 유럽 11개 국가의 EVS 설문 응답자를 결혼, 시민결합, 독신으로 삼분해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민결합은 결혼과 유사한 행복 상승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시민결합은 파트너 간 유대감 및 안정감을 형성해 행복을 증진한다. 우리 사회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삶의 파트너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 심각한 혼인 지표를 감안하면 정책을 통해 보수적 문화를 극복하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주제어: 행복, 결혼, 시민결합

* 주저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E-mail: jjo3747@korea.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E-mail: jkoo@korea.ac.kr).

I. 서론

개인이 삶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을 꼽으면 주관적 웰빙 혹은 행복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이루는 결혼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많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Clark, Diener, Georgellis, & Lucas, 2008; Easterlin, 2003; 구교준 & 김동욱, 2022). 같은 맥락에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행복하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구교준, 임재영, & 최슬기,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삶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변하고 있음이 여러 측면에서 감지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태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56.3%, 여성의 35.5%만이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 혹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22.6.28). 같은 조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 12.1%, 여성 4.7%로 우리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 결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간혼인건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1년 혼인건수는 2011년과 비교하여 58%가 감소했다.

결혼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첫째는 저출산 문제이다. 서방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혼외출산 비율이 극히 낮은 우리나라에서(예를 들어 프랑스 62.2% vs. 한국 2%, 한국경제, 2022.11.27) 결혼을 미루고 심지어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 현재 0.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우리 사회의 주관적 웰빙, 다시 말해 전반적인 행복 수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비해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 27위인 반면, UN 행복보고서의 행복 순위는 58위로 소득 순위와 차이가 큰 편이다. 많은 기존 연구에서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관계와 유대감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그 중 핵심이 배우자와의 평생에 걸친 유대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Helliwell & Putnam, 2004; Vaillant, 2012),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기피하는 경향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회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지위 향상 등의 이유로 결혼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혼인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공통으로 관찰된다.¹⁾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관찰되는 혼인율 및 출생률의 급격한 동반 하락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형성된 대안적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시민결합(civil union)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Seltzer, 2004).²⁾

통계를 통해 대체로 명확하게 관찰되는 대안적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시민결합과 출산율 간의 관계와는 달리, 이러한 제도가 개인의 행복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생에 걸친 유대감이 반드시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존재한다고 단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민결합과 같은 대안적 제도로 맺어진 커플 사이에서도 결혼과 유사한 행복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결합에서도 결혼과 유사한 행복 효과가 확인된다면 이는 기존 연구에서 결여되어 있던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대안적 가족 제도로서 시민결합이 전통적 가족 제도인 결혼과 비교하여 개인의 행복 수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한다. 결혼과는 다른 형식이지만 마찬가지로 친밀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시민결합과 같은 제도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주제일 뿐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될 수 있는 대안적 가족 제도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결혼, 시민결합, 그리고 행복

1. 행복의 개념과 측정

본고의 종속변수인 행복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그 폭과 깊이가 매우 넓고 깊다. 이를 종합하면 크게 쾌락으로서의 행복(hedonia)과 의미로서의 행복(eudaimonia)으로 양분된다. 전자를 추구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인물로 헬레니즘 시대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있다. 그는 각 개인이 쾌락

1) EU 주요국의 인구 1천 명당 평균 조혼인율은 1960년대 8명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3.2명 남짓한 수준으로 많이 감소하였다(Eurostat, 2022.5.16.).

2) 예를 들어 동성, 동거 부부 및 미혼 가정 등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혼외 출산 비율이 62.2%로 우리나라의 2%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한국경제, 2022.11.27).

을 추구하고 고통이 없는 상태(*aporia*)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에 대한 이와 같은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접근방법은 근대에 등장한 공리주의와 밀접상통하는 것이며 나아가 효용(*utility*)을 추구하는 오늘날 주류 경제학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공리주의와 주류 경제학의 밑바탕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관적인 측면의 쾌락도 증가한다는 강력한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Posner, 1979; 구교준 등, 2014). 그러나 *eudaimonia*의 관점에서 *hedonia*는 인간을 쾌락에 얽매이게 만드는 저차원적인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의미(*virtue*) 있는 삶을 추구할 때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Ryan & Deci, 2011). 이들의 논의에 의하면 *hedonia*에 충실하면서 *eudaimonia* 추구에 소홀한 삶은 마약과 비슷하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복용해 매우 큰 쾌락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것은 가치를 결여한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즉, *eudaimonia*는 객관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면서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행복을 정의하는 일 못지 않게 어렵다. 이를 위한 노력은 경제지표를 통해 사회 전반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작업에서 출발했다. 그 바탕에는 경제적 풍요가 곧 좋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있었다(Palys & Little, 1980).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GNP)과 같은 척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국가의 전반적 행복 수준 측정을 위해 널리 채택되었다(de Neufville, 1975; Wilson, 1973).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척도가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사회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망하는 대안적 방법이 도입되기도 했다(Andrews & Withey, 1976). 가령, UNDP는 Human Life Index(HDI)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았으며, OECD는 Better Life Index(BLI)를 활용하고 있다.

사회 단위의 평가를 넘어 개인 단위의 심리 변화를 탐색하자는 주장이 뒤이어 제기되었다(Campbell & Converse, 1972). *Hedonia*의 측정은 개인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의 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인지적 평가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통해, 정서적 평가는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와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를 통해 측정된다(Diener, 1984).³⁾ *Eudaimonia*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개념이 개발되었는데, 여기에는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의식, 개인의 성장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Ryff, 1995). 한편, 주관적 안녕은

3) 본고는 *hedonia*의 지표로 긍정적 정서 혹은 행복감("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을 채택하고, *eudaimonia*의 지표로 삶의 만족도("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귀하는 최근 본인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를 채택했다.

hedonia와 eudaimonia를 합친 전혀 새로운 지표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주관적 안녕의 구성 요소 중 행복감 및 긍정적 정서를 hedonia로, life satisfaction을 eudaimonia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E. Diener, 2000; Kahneman & Krueger, 2006; Landes, 2015). 주관적 안녕과 그것을 구성하는 개념들은 행복을 계량적 연구방법에 적합하도록 개념화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구교준 등, 2020).

행복의 개념과 측정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면 행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주관적 안녕 척도를 사용해 life satisfaction,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때 주관적 안녕은 hedonia도 eudaimonia도 아닌 새로운 대상을 나타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는 정서적 측면의 행복감과 인지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를 따로 측정하여 hedonia와 eudaimonia를 각각 평가하는 것이다. 두 가지 종류의 행복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따로 평가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편의에 달려 있다. 이외에도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척도가 제안된 바 있으므로 각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파악하여야 한다.

2.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행복 연구 문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무엇이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행복은 매우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소득이다. 국가 단위로 살펴보면 1인당 GDP가 높을수록 그 국민은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Easterlin, 1973; Sacks et al., 2012). 소득과 더불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큰 영향을 준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 연령대 응답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행복 수준을 보고하며, 비슷한 맥락에서 자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삶의 만족도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Easterlin, 2003; Deaton, 2008). 이외에도 교육 수준을 행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스페인 거주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은 직업의 유무 및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uñado & de Garcia, 2012).

더욱 추상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시야를 넓히면 자유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행

복과 중요한 관계를 보인다. 실제 자유로운 국가에 사는 개인일수록 자신이 자유롭다고 주관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크며, 그럴수록 더욱 행복하다(Inglehart et al., 2008; Brulé & Veenhoven, 2014). 또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의 국민이 대체로 더 행복하며, 민주주의 전통이 더 깊을수록 상관관계는 더욱 강력하다(Frey & Stutzer, 2000; Dorn et al., 2007). 이는 국가의 각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Hudson, 2006)와도 일맥상통한다.⁴⁾

3. 결혼, 시민결합과 행복

개인 수준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결혼이다. 배우자가 있는 남녀는 그렇지 않은 남녀보다 행복하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의 일관된 발견이다. 이혼, 사별, 별거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인 탓에 애초부터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보다 행복 수준이 비교적 낮다(Glenn & Weaver, 1979; Myers & Diener, 1995; Lee, 2002; Easterlin, 2003; Ng et al., 2022). 이들 연구의 주된 대상인 서구를 벗어나 한국 사회를 관찰해도 동일한 경향이 드러난다. 한국에서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은 인구집단은 모두 배우자가 있다. 생활 만족도 수준이 낮은 인구집단은 대부분 배우자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중·상류층에 속하는 2·30대 기혼 여성의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다. 반대로 가장 생활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배우자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며 경제적 하류층으로 분류되는 4·50대 중졸 남성이다(구교준 외, 2017).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적응으로 인해 결혼이 주는 행복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혼인 상태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행복 수준이 결정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재혼한 집단 또한 초혼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도 증가를 보였다(Easterlin, 2003). 종합하면, 결혼과 행복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상관관계는 특정 문화권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이고 명확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은 과연 결혼 이외의 형태로 함께 생활하는 파트너 간에도 행복 효과가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연결되었다(Soons & Kalmijn, 2009). 결혼과 비교되는 대안적인 가족 관계의 형성 방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동거하는 것이다. 혼인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사는 이러한 관계는 법률적으로 '사실혼'으로 지칭된다. 두 번째 유형은 서구권에서 소개되어 시행되고 있는

4)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논의는 매우 방대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구교준 외(2015), 김지원 외(2021)를 참조하기 바람.

‘시민결합(civil union)’이다. 시민결합은 사실혼의 부분집합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법원에 동거 사실을 알려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민결합의 해소를 원하면 언제든지 해소 사실을 공공기관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 시민결합을 선택한 부부에 대해서는 결혼한 일반적인 부부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준용하므로 결혼에 준하는 법적, 정책적 혜택을 받는다. 대표적 예로 상속권을 들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결혼한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만약 시민결합했다면 이들은 예외적으로 상속권을 법률적으로 인정받아 정당하게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 세금, 연금 등의 다양한 혜택이 시민결합 부부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일하게 주어진다(Boele-Woelki & Fuchs, 2012).

결혼이 아닌 시민결합과 같은 대안적 제도를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탐구 주제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결혼과 시민결합이라는 부부 결합 유형에 따른 행복 효과의 비교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결합 부부와 단순 사실혼 부부의 차이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집단과 받지 못하는 집단의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결합에 관한 연구는 국가가 혼인 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시민결합에 관한 논의는 본래 성소수자들의 결혼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연장선에서 시작했다. 결혼을 할 수 없던 성소수자들이 정책적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임시방편이 바로 시민결합이다(Rothblum, 2005).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시민결합 제도가 폐지된 예도 있다. 그러나 시민결합은 초창기부터 이성애자와 성소수자를 막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여전히 이성과 동성의 결합에 있어 결혼과 시민결합을 함께 운영하는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많다(Godard, 2007). 따라서 시민결합을 동성결혼이라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문제의식에 가두기보다는 이것이 새로운 가족의 결합 형태, 즉 가정을 꾸리는 대안적 방법의 하나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⁵⁾

4. 유대감, 안정감과 행복

결혼의 행복 효과는 부부 간의 정서적 유대와 그에 따른 안정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이유로는 ‘평생에 걸친

5) 가장 최근에는 그리스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로서 EU 27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었다(BBC코리아, 2024.2.16)

유대감이 흔히 거론된다. 한 조사에서 기혼자 4명 중 한 명은 배우자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답했으며, 기혼자 5명 중 4명은 다시금 선택한다 해도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할 것이라고 답했다(Greeley, 1991. Diener, 1995: 15에서 재인용). 많은 사람이 결혼을 통해 평생의 동료를 얻고 외로움을 물리치고 있다고 인식한다(Myers & Diener, 1995).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역경을 함께 견디는 믿음직한 동료가 있다는 뜻이다. 결혼 생활이 주로 여성을 옹아매기 때문에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덜 행복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며 선행 연구를 통해 반박할 수 있다.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행복 차이는 기혼 남성과 미혼 남성의 행복 차이와 비슷한 수준으로(Wood et al., 1989), 이는 결혼이 남성과 여성의 행복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러 부침과 가치관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제도는 여전히 현대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다만 결혼과 행복 간의 관계에 있어 결혼 제도 이면에 있는 보다 근원적인 행복 상승 요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혼인신고는 두 사람의 결합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선언이다. 선언은 그 자체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 강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을 공시(公示)하고 법적으로 강제하여 유대감 형성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다. 혼인신고하여 구속력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부부 사이에서 유대감이 형성되기 용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선을 더 넓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 유대감이 얼마든지 형성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은 시민결합 도입에 관한 정책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대표적인 관련 연구로 파트너와의 동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결혼과 비교하여 분석한 Stack & Eshleman(1998)과 Helliwell & Putnam(2004) 등의 논문이 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파트너와 동거하는 집단 역시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더 행복하다. 그러나 동거에 따른 행복 상승은 결혼보다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거 또한 행복을 증진한다는 결과는 사회 일반에 널리 수용된 기존의 결혼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의 부부 결합을 통해서도 행복 상승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동거' 변수가 정확히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해당 논문은 동거의 형태를 구분하고 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따라서 시민결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통해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시민결합에서도 결혼과

유사한 정도의 정서적 유대와 그에 따른 안정감 형성이 있다면 결혼과 비슷한 행복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측된다.

5. 소득수준과 행복에 대한 결혼, 시민결합의 매개효과

결혼과 시민결합이 행복과 연관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포함한 보다 큰 그림이 필요하다. 가령,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배우자가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통념이다. 결혼이 두 사람의 정서적 교감의 결과인 동시에 두 경제주체의 결합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하다. 소득수준과 결혼의 관계를 다루는 선행연구는 이러한 인식이 대체로 옳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Becker(1973)는 결혼을 경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나아가 Gibson-Davis et al.(2005)은 경제적 지위가 결혼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청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Burgess et al(2003)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혼할 가능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과 배우자 유무 여부 사이에 중요한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Watson & McLanahan(2011)의 연구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사회가 기대하는 경제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남성은 결혼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의 소득수준이 10% 높을수록 남성의 결혼 확률이 2%씩 낮다.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커플은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들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소득수준을 달성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결혼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포함한 종합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소득, 결혼, 행복 간에는 세 가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첫째는 소득수준과 행복 간의 인과관계이다. 앞서 언급한 많은 기존 연구들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해짐을 증명한 바 있다. 이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 효과이다. 둘째는 소득수준과 결혼 간의 인과관계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커플일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다. 셋째는 결혼과 행복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의 유대감을 통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보다 더 행복하다. 대부분 기존 연구는 이들 세 가지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결혼의 행복 효과는 소득과 함께 생각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면 결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모형을 만드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결혼이 아닌 시민결합에서도 앞서 설명한 매개효과 모형이 설명력을 가지는지 파악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림 1>에서 표현되었듯이, 소득수준, 결혼, 행복을 둘러싼 인과관계는 결혼을 시민결합으로 대체하여도 똑같이 작용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시민결합 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결혼한 사람들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이 평생에 걸친 유대감이라면, 그와 같은 정서가 시민결합에서도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과 시민결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도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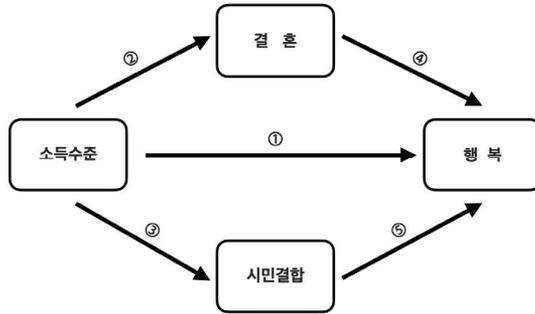
III. 결혼, 시민결합, 그리고 행복

1. 데이터 및 변수

본고는 <그림 1>과 같은 모형에 근거한 매개효과 분석을 Baron and Kenny(1986)의 방법론을 기초로 시도한다.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행복을 종속변수로 하는 ①의 인과관계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주류 경제학의 사고방식이다. ②와 ④의 인과관계 또한 많은 기존 연구들이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①, ②, ④의 관계를 매개효과 모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 ②, ④로 이루어지는 결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더 행복하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결혼할 확률이 더 높으며, 결혼은 행복 상승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①, ③, ⑤로 이루어지는 시민결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시민결합이 파트너 사이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면 여기에서도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European Values Survey 5th Wave(이하 EVS5)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European Value Survey는 유럽인의 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는 설문조사다. 여러 유럽 국가의 거주자들을 매년 수만 명씩 조사하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크다. 특히 EVS5는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따로 나누어 조사했으며 혼인상태를 묻는 문항의 선택지로 결혼, 미혼, 이혼, 별거, 사별과 함께 시민결합(registered partnership)을 포함한다. 이는 유사 조사인 World Values Survey 7th Wave에서 시민결합보다 더 모호한 개념인 동거(living together as married)를 혼인상태 문항의 선택지로 포함하는 것과 차별화되므로 보다 엄밀한 연구가 가능하다.

〈그림 1〉 연구 모형



분석에 활용된 변수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행복은 기존 연구에서 행복의 측정을 위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주관적 안녕 개념을 활용하여 정서적 측면의 행복감과 인지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로 나누어 평가한다(Diener, 1984). 이외에도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행복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나이, 성별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인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회적 요인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분석에 포함시킨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특히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의 자유’ 및 ‘주관적 민주주의 수준’과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개개인의 인식을 변수로 활용한다. 마찬가지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정치 신뢰 수준도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 이 또한 ‘정치 시스템 만족도’ 변수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언급한 변수에 결측이 하나라도 있는 표본은 제외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혼인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독신을 기준으로 결혼과 시민결합의 더미변수로 코딩한다. 결혼한 경우 1로 처리하고, 시민결합한 경우도 1로 처리한다. 이들을 종속변수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득분위(1~10분위)가 한 계단 상승할 때 개인이 결혼 혹은 시민결합할 odds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산한다.

2. 기술통계량

분석 대상으로 추출된 16,815명 중 남성이 7,903명이고 여성이 8,912명으로 규모가 비슷하다. 교육 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낮은 교육 수준 3,388명, 보통 교육 수준 6,491명, 높은 교육 수준 6,936명이다. 결혼한 표본은 8,154명, 시민결합한 표본은 860명, 독신자 표본은 7,801명이다.

〈표 1〉 결측치가 포함된 표본을 제외한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행복감(1~4점, 역코딩)	16,815	3.234	0.625	1.000	4.000
삶의 만족도(1~10점)	16,815	7.795	1.788	1.000	10.000
소득수준(1~10분위)	16,815	5.534	2.816	1.000	10.000
혼인상태					
결혼	16,815	0.485	0.500	0.000	1.000
시민결합	16,815	0.051	0.220	0.000	1.000
독신	16,815	0.464	0.499	0.000	1.000
성별(1 = 남성)	16,815	0.470	0.499	0.000	1.000
나이	16,815	50.934	17.515	18.000	82.000
주관적 건강 상태(1~5점, 역코딩)	16,815	3.889	0.916	1.000	1.000
선택의 자유(1~10점)	16,815	7.441	1.818	1.000	10.000
주관적 민주주의 수준(1~10점)	16,815	7.254	2.179	1.000	10.000
정치 시스템 만족도(1~10점)	16,815	6.005	2.464	1.000	10.000
교육수준					
낮은 교육수준	16,815	0.201	0.401	0.000	1.000
보통 교육수준	16,815	0.386	0.487	0.000	1.000
높은 교육수준	16,815	0.412	0.492	0.000	1.000

3. Harman 단일요인 검정

동일방법편의를 감지하기 위해 Harman 단일요인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정리했다(Podsakoff et al., 2003). 해당 검정은 한 개의 요인을 설정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해 도출된 각 eigenvalue의 비중이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분석에 투입하기 곤란한 결혼, 시민결합, 교육수준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활용하여 단일요인검정을 실시한 결과 뚜렷한 동일방법 편이가 관찰되지 않았다.⁶⁾

6) 그러나 Harman 단일요인 검정은 검증의 파워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엄밀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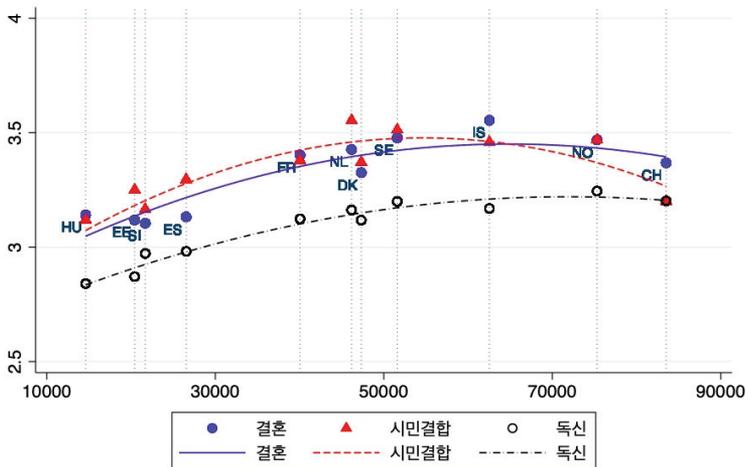
〈표 3〉 Harman 단일요인 검정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1	2.645	1.203	0.331	0.331
2	1.442	0.373	0.180	0.511
3	1.068	0.236	0.134	0.644
4	0.833	0.083	0.104	0.749
5	0.750	0.182	0.094	0.842
6	0.568	0.187	0.071	0.913
7	0.381	0.067	0.048	0.961
8	0.314		0.039	1.000

IV. 연구 결과

1. 결혼, 시민결합, 행복과 1인당 GDP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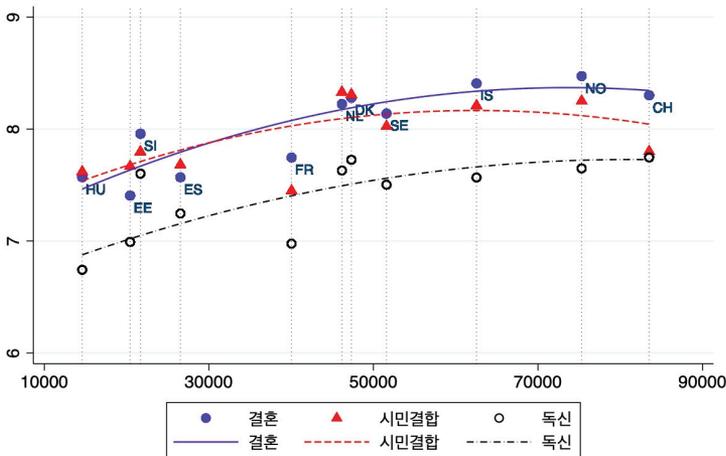
〈그림 2〉 혼인 형태, 1인당 GDP와 행복감(N=16,815)



각국 표본을 혼인 형태에 따라 분류해 행복감 평균을 구한 뒤 〈그림 2〉와 같이 1인당 GDP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 설문조사 실시일의 전년도를 기준

으로 하여 IMF 1인당 GDP 자료를 참조했다. 파트너가 있는 결혼과 시민결합 집단이 독신에 비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더 행복하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결혼과 시민결합의 상대적 추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소득수준이 높은 스위스와 아이슬란드는 결혼한 집단의 행복감 수준이 높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는 결혼 집단과 시민결합 집단의 행복감 수준의 차이가 작다. 반면,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는 시민결합 집단의 행복감 수준이 결혼 집단보다 높다. 소득이 높은 국가는 결혼 집단의 행복감이 더 높고 소득이 낮은 국가는 시민결합 집단의 행복감이 더 높다는 추론이 도출된다. 이는 결혼이 부여하는 경제적인 부담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일수록 결혼이 주는 부담이 적고 유대감 형성으로 인한 행복 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히 평균값을 두고 비교하여 인과적 추론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로 향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림 3〉 혼인 형태,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N=16,815)



〈그림 3〉은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표시한다. 〈그림 2〉에 비해 소득 증가에 따른 결혼 집단과 시민결합 집단의 삶의 만족도 역전이 비교적 빠르게 관찰된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미만인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는 결혼 집단과 시민결합 집단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비슷하거나 시민결합 집단이 더 높다. 그러나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제외하고 모두 결혼

집단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다. 결혼은 행복감보다 삶의 만족도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듯하나 마찬가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2.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급된 개인적, 사회적 수준의 통제변수와 국가 더미를 변수로 포함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가설검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이분산성 문제를 고려해 robust 표준오차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개인 소득수준이 1단계 상승할 때마다 결혼할 가능성과 시민결합할 가능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파악한다. 이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삼아 소득수준이 1단계 상승하면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각각 얼마나 상승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의 매개효과와 시민결합의 매개효과를 비교한다.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델과 결혼 혹은 시민결합을 각각 변수로 추가한 모델을 비교한다. 소득수준의 계수가 감소하면 결혼과 시민결합의 매개효과를 인정한다. 결혼의 매개효과를 측정할 때 시민결합 집단은 분석에서 배제한다. 마찬가지로 시민결합의 매개효과를 측정할 시 결혼 집단을 배제한다. 매개효과와 확인을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 결혼, 그리고 시민결합의 계수가 모든 단계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야 한다.

〈그림 4〉 소득수준, 결혼, 행복감(N = 15,955)



〈그림 5〉 소득수준, 시민결합, 행복감(N = 8,661)



〈그림 4〉는 기혼 및 독신 표본 15,955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행복감 사이에서 결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의 요약이다(전체 분석 결과는 첨부1 참조). 첫째, 소득분위가 한 단계 높아지면 결혼의 odds는 약 1.39배로 상승한다. 둘째, 결혼 집단은 독신 집단보다 행복감이 약 0.2134점 높다. 셋째, 결혼을 매개변수로 추가하면 소득수준의 계수가 약 0.0128점 낮아진다. 세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핵심 독립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결혼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민결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그림 5〉에 요약된 분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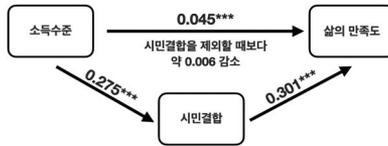
시민결합 및 독신 집단으로 활용된 표본은 총 8,661명이다.⁷⁾ 첫째, 소득분위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시민결합의 odds는 약 1.32배로 상승한다. 둘째, 시민결합 집단의 행복감은 독신 집단보다 약 0.1824점 높다. 셋째, 시민결합을 매개변수로 추가하면 소득수준의 계수가 약 0.0038점 낮아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따라서 시민결합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 즉, 시민결합도 결혼만큼이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결혼을 제외할 때 소득수준 계수의 감소 폭이 시민결합을 제외할 때 소득수준 계수의 감소 폭보다 크다는 사실이 주의를 끈다. 결혼의 매개효과가 시민결합의 매개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는 결혼과 시민결합 모두 행복 수준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을 통해 전달되는 효과가 시민결합을 통해 전달되는 효과보다 크다는 추론으로 이어진다.

〈그림 6〉 소득수준, 결혼, 삶의 만족도(N=15,955)



〈그림 7〉 소득수준, 시민결합, 삶의 만족도(N=8,661)



같은 맥락에서 삶의 만족도를 핵심 종속변수로 하여 결혼과 시민결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그림 7〉은 결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전체 분석 결과는 첨부2 참조). 결혼 및 독신 집단 표본 15,955명의 삶의 만족도를 앞의 사례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결혼 집단은 독신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약 0.4241점 높고 매개변수를 추가하면 소득수준의 계수가 약 0.0253점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시민결합 및 독신 집단 표본 총 8,661명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시민결합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독신 집단보다 약 0.3011점 높다. 매개변수를 추가하면 독립변수 계수가 약 0.0063점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모든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가 확인된다.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결혼의 매개효과는 시민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결혼과 시민결합은 모두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다. 시민결합

7) 전체 분석 결과는 〈첨부1〉을 참조할 것.

도 결혼과 유사하게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안적 가족관계임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시민결합에 의한 행복 상승은 결혼에 비해 다소 작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우선 부부 관계의 해소가 비교적 쉬운 시민결합의 특성상 결혼에 비해 유대감 형성의 정도가 약한 것이 이유일 수 있다. 혹은 결혼과 시민결합이 받는 정책적 혜택의 범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시민결합 부부에게 결혼과 거의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 한편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혼과 시민결합의 행복 효과 차이가 전자의 이유라면 정책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후자의 이유라면 시민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 범위를 늘려 행복 효과를 높일 여지가 있다. 이러한 대안적 가설에 관한 더욱 세분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V. 결론

결혼은 가정 안에서의 유대감 형성을 통해 개인의 행복 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청년 세대가 결혼을 꺼리는 현 상황이 지속하면 가까운 미래에는 배우자가 없는 중·노년 인구의 급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결혼을 통한 행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는 이미 심각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결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안적인 가족 형태를 제도의 틀 안으로 들여오고 결혼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전향적인 접근은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결합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확장하고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보장하면 새로운 가족의 형성과 지속을 촉진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삶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 정책적 혜택에는 구체적으로 청년 시민결합 부부의 임대주택 입주를 돕거나 중·노년 시민결합 부부에게 의료보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있다. 나아가서 시민결합 부부도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제도를 갖추어 나가는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시민결합이라는 대안적 가족제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 전반의 행복은 물론 출산율의 제고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대안적 가족의 형태로 제도 안으로 받아들인 시민결합이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민결합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파트너 간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여 행복 수준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면 시민결합은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결혼과 비교했을 때 시민결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즉, 시민결합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결혼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뚜렷하다.

시민결합을 대안적인 가족의 형태로 제도 안으로 들여오으로써 결혼제도가 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결혼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여 높은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시민결합을 활성화해 대안적인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면 청년들의 가족 형성과 출산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이 전적으로 가족의 형성과 결부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적 풍토에서 시민결합의 도입을 통해 ‘가족’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뚜렷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표본을 엄밀히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유럽의 시민결합 제도는 본래 성소수자를 주요 수혜자로 상징하고 도입되었다. 따라서 표본의 성적지향을 통제할 수 있다면 행복에 관한 시민결합의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시민결합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정책 수혜자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우선 예측해 정책 수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과 유럽의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민결합 도입의 정책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비교적 보수적인 가족관을 고수하는 한국 사회는 유럽과 상이한 양상을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해법이 더욱 정제된 후속 연구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시민결합의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가족관을 극복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면 도입에 앞서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시민결합 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점진적 확대는 보수적인 가족관에서 기인하는 국민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건실하게 자리잡지 못한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역으로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 문화적 반발을 설득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도 있다. 행복 상승이 정체하고 혼인율과 출산율 등 각종 지표가 심각한 방향으로 향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수적 가족관이 완화하기까지 기다리기보다 정책 개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를 바꾸는 전향적 접근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구교준 · 김동욱. 2022.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활용한 행복취약계층 찾기.” 《정부학연구》, 28(3):191-214.
- _____. 임재영 · 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_____. _____. _____.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 _____. _____. _____. 2017.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서울: 집문당.
- 김지원 · 구교준 · 김동욱 · 고은정 (2021). $H=XZ^2$ 행복방정식을 푼다: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리뷰. 정부학연구, 27(3), 85-119.
- Baron, Reuben M., & Davi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er, Gary S. 1974. “A theory of marriage.”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99-351.
- Boele-Woelki, Katharina, & Angelika Fuchs. 2012.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in Europe*. Intersentia.
- Brulé, Gaël, & Ruut Veenhoven. 2014. “Freedom and happiness in nations: Why the Finns are happier than the French.” *Psychology of Well-Being* 4: 1-14.
- Burgess, Simon, Carol Propper, & Arnstein Aassve. 2013. “The role of income in marriage and divorce transitions among young America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6): 455-475.
- Clark, Andrew E., Ed Diener, Yannis Georgellis, & Richard E. Lucas. 2008. “Lags and Leads in Life Satisfaction: A Test of the Baseline Hypothesis.” *The Economic Journal* 118: F222-F243.
- Cunado, Juncal, & Fernando P. De Gracia. 2012. “Does education affect happiness? Evidence for Spai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 185-196.
- Deaton, Angus. 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53-72.
- Diener, Ed.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
- _____.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
- Dorn, David, Justina A. V. Fischer, Gebhard Kirchgassner, & Alfonso Sousa-Poza. 2007. “Is it culture or democracy? The impact of democracy and culture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505-526.
- Easterlin, Richard A. 1973. “Does money buy happiness?”. *The public interest* 30: 3.
- _____. 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19): 11176-11183.
- Frey, Bruno S., & Alois Stutzer. 2000. “Happiness Prospers in Democrac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79-102.
- Gibson-Davis, Christina M., Kathryn Edin, & Sara McLanahan. 2005. “High hopes but even higher expectations: The retreat from marriage among low-incom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5): 1301-1312.
- Glenn, Norval D., & Charles N. Weaver. 1979. “A note on family situation and global happiness.” *Social forces*: 960-967.
- Godard, Joelle. 2007. “Pacs seven years on: Is it moving towards marriag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21(3): 310-321.
- Greeley, Andrew M. 1991. *Faithful Attraction*. New York: Tor Books; Myers, David G., & Ed Diener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에서 재인용.
- Helliwell, John F., and Robert D. Putnam.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Hudson, John. 2006. “Instituti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EU.” *Kyklos* 59(1): 43-62.
- Inglehart, Ronald, Roberto Foa, Christopher Peterson, & Christian Welzel.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4): 264-285.
- Kahneman, Daniel, & Alan B. Krueger.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3-24.
- Landes, Xavier. 2015. "Building happiness indicators some philosophical and political issues." *Les ateliers de l'éthique* 10(2): 4-37.
- Lee, Gary R., Karen Seccombe, & Constance L. Shehan. 1991. "Marital status and personal happiness: An analysis of trend dat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39-844.
- Myers, David G., & Ed Diener.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Ng, Yee To, Meng Huo, Sae Hwang Han, Kira S. Birditt, & Karen L. Fingerman. 2022. "Older adult's marital status, conversation frequency, and well-being in everyday 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7(3): 499-512.
- Podsakoff, Philip M., Scott B. MacKenzie, Jeongyeon Lee, & Nathan Podsakoff.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 Posner, Richard A. 1979. "Utilitarianism, economics, and legal theory."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8(1): 103-140.
- Rothblum, Esther D. 2005. "Same-sex marriage and legalized relationships: I do, or do I?." *Journal of GLBT Family Studies* 1(1): 21-31.
- Ryan, Richard M., & Edward L. Deci.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 Ryff, Carol D. 1995.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99-104.
- Sacks, Daniel W., Betsey Stevenson, & Justin Wolfers. 2012. "The new stylized facts about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 12(6): 1181-1187.
- Seltzer, Judith A. 2000. "Families formed outside of marriage." *Journal of*

- marriage and family* 62(4): 1247-1268.
- Soons, Judith PM, & Matthijs Kalmijn. 2009. "Is marriage more than cohabitation? Well-being differences in 30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5): 1141-1157.
- Stack, Steven, & J. Ross Eshleman. 1998. "Marital status and happiness: A 17-n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7-536.
- Vaillant, George E. 2012. *Triumphs of experience: The men of the Harvard Grant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 Watson, Tara, & Sara McLanahan. 2011. "Marriage meets the Joneses: Relative income, identity, and marital statu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6(3): 482-517.
- Wood, Wendy, Nancy Rhodes, & Melanie Whelan. 1989. "Sex differences in positive well-being: A consideration of emotional style and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06(2): 249-264.
- EVS/WVS. 2022. "European Values Study and World Values Survey: Joint EVS/WVS 2017-2022 Dataset". *JD Systems Institute & WVSA*. Dataset Version 4.0.0 ([doi:10.14281/18241.21](https://doi.org/10.14281/18241.21))
- 《BBC코리아》. 2024. "그리스, 정교회 국가 중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2월 14일.
- 《조선일보》. 2022. "남성 12%만 "결혼, 반드시 해야 한다"...여성은?". 6월 28일.
- 《한국경제》. 2022. "多産 국가 프랑스, 신생아 62% 혼외 출산." 11월 27일.
- 《Eurostat》. 2022. "How many marriages and divorces took place in 2020?". May 16.

〈부록 1〉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결혼의 매개효과			시민결합의 매개효과		
	(1) 결혼	(2) 행복감	(3) 행복감	(4) 시민 결합	(5) 행복감	(6) 행복감
소득수준	0.329*** (0.009)	0.027*** (0.002)	0.014*** (0.002)	0.275*** (0.016)	0.021*** (0.002)	0.018*** (0.002)
결혼			0.213*** (0.010)			
시민결합						0.182*** (0.021)
성별(남성)	-0.146*** (0.037)	-0.031*** (0.009)	-0.037*** (0.009)	0.156 (0.080)	-0.055*** (0.012)	-0.057*** (0.012)
나이	0.239*** (0.009)	-0.002 (0.002)	-0.011*** (0.002)	0.178*** (0.016)	-0.008*** (0.002)	-0.009*** (0.002)
나이 제곱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주관적 건강 상태	0.088*** (0.022)	0.209*** (0.006)	0.206*** (0.006)	0.071 (0.049)	0.225*** (0.008)	0.224*** (0.008)
선택의 자유	-0.021* (0.011)	0.062*** (0.003)	0.063*** (0.003)	-0.005 (0.025)	0.062*** (0.004)	0.062*** (0.004)
주관적 민주주의 수준	0.005 (0.012)	0.004 (0.003)	0.004 (0.003)	0.008 (0.026)	0.004 (0.004)	0.004 (0.004)
정치 시스템 만족도	0.035** (0.011)	0.011*** (0.003)	0.009*** (0.013)	-0.021 (0.023)	0.009* (0.004)	0.009* (0.004)
교육수준(중)	-0.159** (0.053)	-0.014 (0.013)	-0.009 (0.013)	-0.162 (0.126)	-0.025 (0.018)	-0.023 (0.018)
교육수준(상)	-0.442*** (0.056)	-0.036** (0.013)	-0.020 (0.013)	-0.161 (0.126)	-0.016 (0.018)	-0.014 (0.018)
상수항	-8.841*** (0.233)	1.689*** (0.051)	1.906*** (0.052)	-8.088*** (0.476)	1.784*** (0.065)	1.825*** (0.065)
N	15,955	15,955	15,955	8,661	8,661	8,661
R ²	Pseudo R ² : 0.219	Adjusted R ² : 0.222	Adjusted R ² : 0.244	Pseudo R ² : 0.218	Adjusted R ² : 0.243	Adjusted R ² : 0.250

Note: * p<0.05, ** p<0.01, *** p<0.001 (robust SE in parentheses)

〈부록 2〉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결혼의 매개효과			시민결합의 매개효과		
	(1) 결혼	(2) 삶의 만족도	(3) 삶의 만족도	(4) 시민 결합	(5) 삶의 만족도	(6) 삶의 만족도
소득수준	0.329*** (0.009)	0.064*** (0.005)	0.038*** (0.005)	0.275*** (0.016)	0.051*** (0.006)	0.045*** (0.007)
결혼			0.424*** (0.028)			
시민결합						0.301*** (0.054)
성별(남성)	-0.146*** (0.037)	-0.094*** (0.023)	-0.107*** (0.023)	0.156 (0.080)	-0.153*** (0.034)	-0.156*** (0.033)
나이	0.239*** (0.009)	-0.001 (0.004)	-0.018*** (0.004)	0.178*** (0.016)	-0.013* (0.005)	-0.016*** (0.005)
나이 제곱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주관적 건강 상태	0.088*** (0.022)	0.616*** (0.017)	0.608*** (0.017)	0.071 (0.049)	0.674*** (0.024)	0.672*** (0.024)
선택의 자유	-0.021* (0.011)	0.335*** (0.009)	0.336*** (0.009)	-0.005 (0.025)	0.347*** (0.012)	0.347*** (0.012)
주관적 민주주의 수준	0.005 (0.012)	0.027** (0.009)	0.027** (0.009)	0.008 (0.026)	0.018 (0.012)	0.018 (0.012)
정치 시스템 만족도	0.035** (0.011)	0.044*** (0.007)	0.041*** (0.007)	-0.021 (0.023)	0.042*** (0.010)	0.042*** (0.010)
교육수준(중)	-0.159** (0.053)	0.021 (0.037)	0.031 (0.037)	-0.162 (0.126)	-0.073 (0.051)	-0.069 (0.051)
교육수준(상)	-0.442*** (0.056)	-0.047** (0.037)	-0.015 (0.037)	-0.161 (0.126)	-0.030 (0.051)	-0.028 (0.050)
상수항	-8.841*** (0.233)	1.731*** (0.143)	2.162*** (0.146)	-8.088*** (0.476)	1.874*** (0.183)	1.941*** (0.184)
N	15,955	15,955	15,955	8,661	8,661	8,661
R ²	Pseudo R ² : 0.219	Adjusted R ² : 0.334	Adjusted R ² : 0.344	Pseudo R ² : 0.218	Adjusted R ² : 0.346	Adjusted R ² : 0.348

Note: * p<0.05, ** p<0.01, *** p<0.001 (robust SE in parenthe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tatus and Happines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Between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Seungmin Jeon & Jun Koo

The trend of young adults abstaining from marriage continues unabated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s this demographic transitions into middle and old age, overall happiness is poised to significantly decline in nations affected by this phenomenon. In South Korea, where childbirth is strongly associated with marriage, this trend only exacerbates the serious issue of low birth rates. Examples from Europe have shown that one potential solution could involve introducing civic partnerships with relatively lower entry barriers to broaden the scope of policy benefits. This paper compares the impacts of traditional marriage and the alternative institution of civic partnerships on individual happines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such impacts. To this end, a mediation analysis stratified by marital status (married, civic partnership, single) is conducted using survey responses from 11 European countries, and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reveal that civic partnerships demonstrate a happiness increase akin to that observed in marriage. Civic partnerships foster a sense of solidarity and stability between partners, thus enhancing happiness. Our society should strive to assist individuals in finding life partners regardless of their preferred institution of partnership. To address the alarming indicators of marriage declin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se types of proactive policy measures aimed at overcoming conservative cultural barriers.

※ Keywords: Happiness, marriage, civil partnership

